

#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되어야 누릴 수 있어

## 인간이 변하여 하나님이 되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어제 문화일보에 '예수는 없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 책이 지금 책방에 잘 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한국은 종교적 미미기에 있다고 했는데 미미기라는 건 어린 아이라는 소리죠? 종교가로서는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예수가 미개국에서나 성하지, 발달한 구라파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탕구리 미개한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점점 하나님의 세계로 뒤집어 나가 '예수가 없다'는 책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종교는 종교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세계의 종론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이 되어야 돼, 천천히 하나님이 되어야 돼? 빨리 되어야요?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 노릇을 해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사람 노릇을 해가지고는 천년, 만년이 가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인 고로 나를 미워해야 돼, 예배해야 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고 지옥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죽을죄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절단구 구원은 상관 없습니다. 인간의 탈을 입으면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 고로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변하여 하나님이 되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유물인 고로 하나님이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고 인

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 나를 짓이기고 미워해야

인간의 탈을 벗어야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벗으려면 인간의 기본요소가 나라는 의식인 고로 나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죽을죄인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항상 나를 짓이기고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긴자가 됐느냐 하면 밀실에서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는 걸 안 다음부터는 나를 보통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연히 미워하면, 이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할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전에 '맞아,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마귀새끼야! 죽여야 돼!' 하는 마음으로 살았지,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짓이기고 죽일까 하는 생각만 했지, 어떻게 살아가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미운 고로 누가 사기지도 않았는데 상에 가서 잔디 꺾데기를 벗기고 나무가 있는 곳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제거하고 큰 바위는 깨서 없애버리고 밭을 개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밭을 개간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땅이 얼마나 나쁜 작업복이 땀범벅이 되어가지고 땀이 팔꿈치에서 뚝뚝 떨어지고, 바지허벅이에서 뚝뚝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미운 고로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 쉬고 싶은 마음이 나오면 '이 마귀새끼야, 네가 어떻게 될 수 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한 고로 죄를 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탈을 완전히 벗으려면



구세주 조희성님

인간의 성품을 벗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라고 의식하고 여자가 나는 여자라고 의식하는 그 자체가 죽을죄인 것입니다. 마귀나 '나는 남자다, 여자다' 하고 의식을 하는 것인 고로 남자, 여자를 의식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사람의 탈을 벗으려면

내 몸과 생명이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 하는 것은 마귀새끼인 고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다음에 이 마귀 새끼는 지옥에 던져도 좋고, 죽어서 없애버려도 좋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좋으니 하나님 뜻만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기도제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실일까요, 그냥 겉으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는 걸까요? 진실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

은 밀실에서 굶은일은 혼자 다 맡아 했던 것입니다.

포도가 열매를 맺어 다 익으면 따가지고 전부 껍질에 담아서 직접 구르마를 끌고 소사 광시장에 내다가 팔았던 것입니다. 밀실에서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 사람이 혼자 힘들게 간 것은, 누가 나를 도와주면 시장까지 끌고 가는데 쉽게 갈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구르마에 잔뜩 포도를 넣고 언덕을 올라 갈 때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하면서 끝까지 끌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진해서 힘든 일을 했던 것은 나라는 것이 마귀인 고로 그토록 미워했던 것입니다. 내가 미우면 굶은 일, 힘든 일을 다 하는 것은 물론이요, 어린 아이한테도 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미물만도 못한 죄인인 고로 어린 아이도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고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러한 힘든 일만 골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미워해야 되는 고로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욕을 하면 '맞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악질 분자입니다.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때려주세요.' 하는 심정이 있어야 사람의 탈을 벗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 되는 방법

계속해서 자기를 미워하면 마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존재할 수가 없도록 하는 마음의 근본 자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미웠던지 반찬으로 나온 소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고로 '이 마귀새끼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먹는 고기를 먹어, 나는 마귀새끼니까 씹바귀만 쳐먹어.' 그러면서 씹바귀만 집어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던 사람이 '왜, 고기를 안 잡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나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마귀새끼가 고기를 먹으면 힘이 더 생기면 시장까지 끌고 가는데 쉽게 갈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구르마에 잔뜩 포도를 넣고 언덕을 올라 갈 때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하면서 끝까지 끌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 말씀 묵상으로 구세주의 실체를 알아가기

① 사실은 이 사람이 얼마든지 욕에서도 그 철장을 부숴버리고 거기서 날아서 올 수가 있었어요. 여기, 마귀가 흉내낼까봐 이 사람이 욕에서 고소란히 7년 동안 앉아서 정역을 살고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의 실력으로 날아서 오려고 시도했으나 하나님께서 만류하시잖아. 만약 감옥 철장을 부숴버리고 거기서 날아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시 잡아놓으려는 엄두를 못내게 하는 효과가 보였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교도소 운동장에서 시험을 해 보았어요. 시험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지붕 꼭대기로 날아가요. 몸이... (2002\_02\_18 말씀)

② 지금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

안 먹고 쓰디쓴 씹바귀만 먹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나를 짓이기는 투쟁을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나를 짓이기는 생활을 해야, 그래야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고 집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손을 놀리고 청소도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몸이 건강한 것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만 나이를 많이 먹어도 힘든 일을 골라서 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미워하는 생활을 하고 내 눈에 띄는 사람들을 전부 내 상전으로 여기고 내 하나님으로 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단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제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지출만한 건 다 치워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14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욱 기자

##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로까지



## 《7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다》

### (5) 모세가 혈문산에 올라 돌제단을 쌓다

#### (4)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을 경유하다

(지나호에 이어서)  
출애굽 40년 9월(기슬르월)초에 모압 고원지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징집된 6만 명의 군사들이 모세의 통솔 하에 여기서 광야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광야의 그데못에서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시혼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헤스본의 시혼 도성에서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지만, 이스라엘의 칼날에 패하였습니다. 헤스본의 시혼 도성은 전란을 맞아 불타고 있었지만, 아모리인들이 항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오히려 처자식들까지 화염에 질식하여 죽는 비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피에 굶주린 짐승들처럼 아모리 사람들이라면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살육하고 심지어 그 어린 아이들조차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칼로 베어 죽이는 잔학한 행위를 행하였습니다.  
신명기 2장 34절  
그 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해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창세기 34장 25절  
시므온과 레위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므라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 불타는 시혼 도성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야곱)의 첩이 되는 레아가 낳은 시므온 족속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들의 잔학한 행위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들을 훈계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야곱의 첩이 낳은 유다족속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처럼 꾸며야 마귀가 집중적으로 유다족속을 감시하고 그 혈육을 더럽혀 최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화살이 유다족속으로 쏠리게 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

라엘(야곱)의 장자 단(Dan)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배출하려고 만대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 (5) 모세가 혈문산에 올라 돌제단을 쌓다

시혼 도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헤스본의 북쪽 10킬로미터쯤에 있는 야셀(Lazer)까지 진격하였습니다. 야셀은 아모리 마을로서 그 땅이 매우 비옥하였고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자손 중에 수많은 가축 떼를 소유한 것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야셀 땅을 그들 자손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시므온 족속과 유다 족속들과 합세한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도 그 자손을 따라 똑같은 요청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32장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들 네 지파는 이스라엘(야곱)의 첩 레아 자식과 레아의 몸종 실바 자식의 후손들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의 형제 이스라엘은 싸우려 나가는데, 너희들만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민수기 32장 8절: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9절: 그들이 예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나니  
10절: 그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 맹세하여 이르시되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십 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미워하였음이니라  
12절: 그러나 그나사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렐과 눈의 아들 여후수아는 여호와의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에게 사십 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신 여호와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의 때를 면하여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라



▲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 떼를 가졌더라(민32:1)

이스라엘의 첩 레아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하였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고 그 주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

1 가나안: 한국의 경기도 크기이며,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리고 히위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입니다(창 12:7).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동쪽은 요단강으로 경계를 짓고 있으며 서쪽은 지중해 바다로, 남북의 경계는 여부스(예루살렘)의 옛 지명에서 길보안산과 갈멜산까지 이릅니다. 이 가나안의 넓이는 대한민국 경기도 크기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4등분하여 이스라엘의 분처 라헬 자식의 자손들에게만 기업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라헬 자식의 후손은 단 족속과 므낫세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 그리고 베냐민 족속을 말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 안젤라

돌제단을 쌓은 곳이며, 그 돌제단은 벤엘과 아이 사이의 세겜 땅 마므레 상수리나무 아래에 쌓았던 것입니다(창 13:3). 그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창 13:7).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히위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 히위의 자손입니다(창 10:17). 이 히위 족속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이외에도 북쪽으로 120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혈문산 근방의 라이스(훗날 단지파에 의해 '단'으로 개명됨) 등지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